

1. 주님의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의 정착 과정

- 1) 새가족이 등록대(1층 로비)에서 등록 카드를 기록 제출한다.
- 2) 주중에 약속하여 등록한 다음주에 새 가족환영실에서 교구담당 교역자 및 구역장, 새가족도우미(바나바)와의 만남을 갖는다.
- 3) 새가족도우미(바나바)는 새가족에게 매주 구역원을 비롯한 가까운 교우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관계형성을 이루도록 돕는다.
- 4) 새가족이 주일2,3부예배 후에 있을 새 가족 성경공부 5주과정에 참여한다.
- 5) 새가족이 가능한 때에 교구교역자의 심방을 받는다.
- 6) 새가족도우미와 구역장은 적절한 시기에 새가족을 구역모임으로 초청한다.
- 7) 2-3개월마다 열리는 새가족환영행사를 통해 주님의교회 가족이 됨을 함께 축하한다.
- 8) 구역정착과 함께 200양육과정 혹은 사역에 참여한다.

2. 난곡공부방 피아노

기증하실 분을 찾습니다

119사역팀(팀장 한정웅 집사)에서는 “가난한 결혼가족이라고 음악을 배울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난곡 공부방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기증한다면, 그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마음을 순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듣고 연주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달동네의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찬양을 연주한다면 공부방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질까요”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중고 피아노를 기증하실 분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피아노 교사로 봉사하실 분도 한정웅목사 016-706-2331, 윤덕영목사 019-676-24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친교실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금까지 주일에만 사용하던 친교실을 4월 부터는 주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회는 3월 당회에서 친교실의 보다 유용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중(월-토)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친교실의 문을 열어 교인들 끼리의 만남은 물론 정신학교 선생님들,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사회와 보다 더 친밀한 교회로 다가가기로 했다. 봉사인원은 자원봉사 연결팀을 통해 신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오전 오후 조로 이미 편성을 끝냈으며 다양한 차도 실비(1,000원)로 판매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지원과 정신학교 지원(교회에서 지원하는 곳 이외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회에서는 4월 개방을 앞두고 친교실의 예쁜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응모하실 분은 이름을 적은 쪽지를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3월28일(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응모한 이름 가운데서 다수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결정하게 된다.

양육과목 소개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신앙의 기본, 그 정수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박의일 전도

사가 강의하는 본 과목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5층 청년부 1실에서 3시까지 진행된다. 본 과정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과 반드시 경험해야 할 믿음의 방법과 분명히 드러나야 할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며 실제적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는 5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하였지만 그 열기만큼은 어느 강의보다 뜨겁다. 지난 주일에는 과정 전체 개관과 함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강의했다. 이번 주일에는 종말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론적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하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속박에서 자유 함으로: 출애굽기 연구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박의일 전도사가 강의하는 본 과목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12시까지 진행된다. 본 과정의 목표는 출애굽기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과거(죄의 속박)와 현재(탄원의 기도)와 구원의 경험, 그리고 미래(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살펴봄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돕는 것이다. 현재는 3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하였지만 그 열기만큼은 어느 강의보다 뜨겁다. 지난 금요일에는 출애굽기에 관한 전체 개관과 함께 성경의 거울

이미지에 관해 강의했다. 다음 금요일에는 출애굽기 1:1-2:25을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노예생활)와 새로운 시작(모세의 출생)이라는 주제로 서로간에 열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모세를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며 모세를 은유적인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하다.

(2면에 이어)

안수집사 월례회 최창섭장로 특강

그래서 성경과 우리속담에서도 일관되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두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생각없이 말하는 사람 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바보에게 더 희망이 있다(잠 29:20)고 말하고 있을까? 선한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은방반배 금사과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불가능한 말들이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심판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뱉은 무익한 말(말의 실수)에 대해 먼저 변명,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 말로 유죄나 무죄냐를 판결하시겠다는 것이다.(마 12:36,37)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각 이후,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기위해 말에 실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9팀 속초산불 현장을 가다

신발 150켤레를 동대문상가에 주문

임시처소인 금호콘도에 10가구 머물도록 400만원 전달

“강풍이 동반한 이번
산불로 46가정 129명
이 이재민이 되었다”

3월 10일(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국전력변전소 뒤쪽 청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시간여만인 11일(목) 11시 30분께 완전 마무리됐다. 강풍이 동반한 이번 산불로 46가정 129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우리 교회 119지역팀장 한정웅집사와 총무 김용남집사 그리고 윤덕영목사는 12일(금) 저녁 7시에 속초로 출동하여 현장을 가 보았다. 이미 이재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발 150켤레를 동대문상가에 주문해 놓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보내기로 조치해 놓았다. 밤 11시에 현장 도착해보니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강풍이 여전히 불고 있었는데, 산불 당시 산불이

4~5 킬로미터를 건너뛰면서 산아래 5~6개의 마을을 공격했다. 벽돌집이 아닌, 오래되고 허름한 판자집만을 골라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런 집에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있었다.

17일(수) 현장을 방문한 성백술장로, 정규창장로, 한정웅집사는, 속초시에서 임시 주택을 건축하기까지 한 달 가량이 걸리는 동안에 이들의 임시처소로 금호콘도로 정하고 1일 6만원의 숙박료를 2만원으로 협상하여, 10가구가 머물 수 있도록 일단 400만원을 전달해주었다. 현재 나머지 가구는 친척이나 마을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119지역팀은 추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한 가정을 세워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현지 지원캠프인 한울교회 강승오목사와 속초시당국과 금호콘도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주인공은 가족이 전부 정신박약아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 세 식구인데, 할머니가 폐품을 모으며 살아가

다가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가족은 마을에서 평판도 좋았기에,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사진설명 : 지난주일 마라톤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안내를 따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의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종합경기장 대회시에는 대회관계자 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예배참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3월 정기당회, 수요성경공부 30분 앞당기고, 산불이재민 후원하기로 결의

13일 오전6시에 정기당회가 열렸다. 결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수요성경공부 시간을 현재 수요일 오후 8시에서 3월24일부터는 오후 7시30분으로, 이어 구역장성경공부를 하기로 하여 30분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다. 무지개축제를 5월2일에 하기로 하고 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기로 하였다. 교회 교직원 리용 서버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로 하였다. 교회학교 초등부실의 내부배치를 다시 하기로 하였다. 유년부실에는 빔프로젝터를 새로이 구입하여 고정설치한다. 교회학교 지도자 연수를 위하여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크릭 교회 탐방 및 Willow Creek Association Conference에 교회학교 교사를 보내기로 하고 비행기값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교회에서 보조하기로 하며 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예수전도단 한국대표인 문희곤 목사를 협력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고, 장년부 양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친교실 운영방안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도 있었다. 강원도 산불 재해 이재민들이 속초시에서 준비해주시기로 한 집이 마련될 때까지 금호콘도와 협의하여 임시거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요경비(1일 1가구당 2만원씩 1달 600만원 정도)를 후원하기로 하였다.

복지선교부

강원도 횡성 세계십자가 선교회 방문계획

복지선교부는 3월 28일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횡성에 있는 후원기관인 세계십자가 선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여개 후원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십자가선교회를 섬기는 안일권목사는 외대를 졸업하고 국제상사에 근무하다가 실명한 후 신학을 공부하고 이후로 알콜과 마약중독자들과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분의 열정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자 이 현장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충길 복지선교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슴 가득히 채워가기로 오는 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지부원들 가족들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봉사의 현장에서 사역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는 복지선교부원들간의 교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호스피스부 소식

30기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이 열려

호스피스부는 양혜림집사와 김양자권사가 강사로 봉사하여 4주간의 발맞추기 4주간 교육을 마쳤다. 5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하여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발맞추기 요법”의 목적이 바로 자연 치유력의 회복이라는 작은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수강생들의 얼굴이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띄었다.

한편, 3월 18일(목) 덕수궁역의 역사길은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아펜젤러홀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기

무지개호스피스교육이 시작되었다.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양자권사의 인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의 특송이 있은 후 1강과 2강의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20강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실무자 3명이 참석하였고, 7명이 다시 수강생으로 참석하였다.

성경 어머니들 정신학원 수련회 반별로 맡아 봉사

정신학원이 개학과 함께 성경 어머니들의 마음이 설레임과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정신학원선교부장 정양재집사는 3월 21일 1시에 대나무집으로 성경어머니들을 초대하여 함께 상견례를 하고 사역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엔 성경어머니들이 하게 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밀알수련회 간식을 담당한다. 기독교학교인 정신학원은 각 반이 일년에 한 차례씩 반별 1박 2일 수련회(이름:밀알수련회)를 하는데, 간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한명의 성경어머니마다 매월 한 시간동안 반별로 6~7명의 소그룹을 만나서 경청하고 사랑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지난해 2학년 4반만을 담당하다가, 올 해에는 2학년 3반(월4교시), 2학년 1반(월2교시), 2학년 4반(목3교시), 2학년 6반(금4교시)를 맡게 되었다. 일전에 준비모임을 가졌던 이창성권사님의 당시 분위기는, “나는 머느리감을 찾아봐라지.” “우리 고등학생 아들친구들하고 미팅을 시켜줘라지.” (웃음) 하면서 저마다 좋은 성경어머니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3월 27일 훈련병

세례식 누구나 갈수 있어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를 야전사 최초로 열어서 좋은 결실을 맺은 15사단의 부사단장 박진수집사의 기사는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국내선교3위원회 성백술 장로는 군선교부가 3월 27일 훈련병 6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조성곤집사와 청년팀들, 그리고 윤덕영 목사와 함께 갈 계획이다. 윤덕영 목사는 "그곳에 절망하고 가난한 병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성육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오겠다"고 기대하며 진중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에 모여 교회에서 출발할 계획이며 누구나 함께 갈 수 있다.

첫 구역예배모임을 갖고서(1-5구역)

올 한해도 구역이 번식되고 은혜가 풍성한 구역이 되길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3층 밑알실에서 1교구 5구역(강동여성 3구역)이 올해 첫 구역모임을 가졌다. 7명이 출석하여(구역장 김영미집사, 권철 홍정미집사) 긴 겨울방학 동안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모임을 가졌다. 짧은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교재를 배부한 후에 처음으로 참석한 장경선집사의 소개도 있었다. 1-5구역은 2003년 봄, 박희주집사를 구역장으로 출석인원 7-8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역이 점차 번식됨으로 일년도 채 안되어 출석인원 15-17명으로 급성장하였다. 소그룹

이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므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작년 하반기 들어 섭섭함을 뒤로하고 다시 두 구역으로 나뉘게 되었다(1-5구역과 1-2구역으로) 함께 구역예배드릴 때 정이 듬뿍 든 두 구역은 구역예배는 각각 드리지만 때로는 식사나 야외예배를 함께 함으로 애정을 나누기도 한다.

올해 첫 구역모임에서도 구역예배가 끝난 후 두 구역은 교회로 비에서 만나 가까운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구역원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있었던 구역의 두 자녀가 대학입시와 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다. 구역원들은

"올 한해도 구역이 번식되고 각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구역이 되기를 바라고 자주 두 구역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기로 하자"며 첫모임을 마쳤다.

교회학교 예배실

재배치 및 빔프로젝트

고정 설치 공사

기존의 3층 초등부 예배실은 세로가 가로보다 현저히 길게 설계되어 예배(강의/수업)의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실례로 뒤에 앉은 어린이들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교 및 율동 기타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초등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안으로 부채꼴 모양의 재배열을 기안하였고 이를 당회가 수락하여 지난 주간 공사가 이루어졌

다. 부채꼴 모양의 예배당은 앞에서 진행되는 인도자가 동시선의 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므로, 인도자나 학습자 모두 예배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층 유년부실의 빔프로젝트의 고정 설치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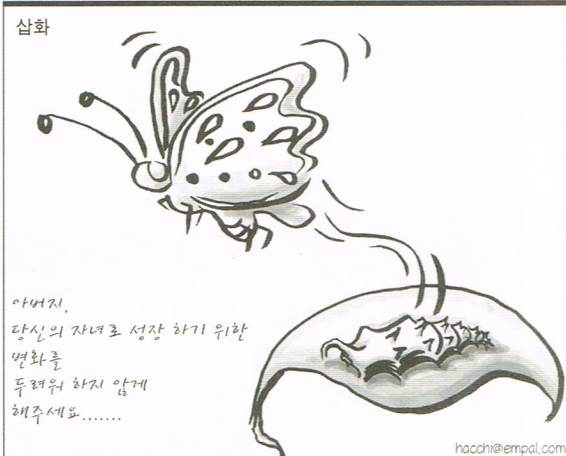
장애인부, 정립전자직원 초청음악회계획

장애인부는 분기 모임을 갖고 첫째, 4월20일(화) 오후 5시30분에 정립회관 강당에서 정립전자직원 초청 음악회를 개최, 약 100명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기로 했다. 당회원들과 관심있는 성도들이 참석해서 격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주일 2부 예배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빠르시일 안에 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크리스천의 언어생활

안수집사 월례회 최창섭 장로 특강

지난 주일(14일)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안수집사 월례회가 있었다. 1부는 최창섭 장로의 "크리스천의 언어생활"에 대한 강의, 2부는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날 있었던 강의 내용을 간추려본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언어도 당연히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에 그 인격에 흠이 있을 수 없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함에도 예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명하고 있다(마 5:48) 그리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에 대해 약 3:2절에서 친절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찬양이나 연보로 완전해 진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말의 실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말의 왜곡과 왜곡이다. 왜곡은 바르지 않고 굽었다는 뜻이고 왜곡은 말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달된다는 뜻인데 이 왜곡과 왜곡은 말한 사람의 명예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왜곡, 왜곡한 사람의 인격에도 큰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거짓말도 당연히 말의 실수에 해당한다. 선의의 거짓말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에게 겨자씨 만큼이라도 체면을 세우는데 이용한다거나 위기를 넘기는데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 유형 무형의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 수 없다. 비속어를 남용하는 말버릇도 말의 실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속어는 말 그대로 낮고 천한 말인데 말이 곧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비속어는 하나님을 낮고 천한 분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심지어 허튼말과 자기자랑 까지도 말의

실수에 포함하고 있다. 허튼말은 표현이 말이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며 자랑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은 선한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경우에 맞는 말만 하라는 것이다. 말의 실수를 줄일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소극적인 방법)은 평소 보다 말 수를 줄이는 것이다. (4면에 계속)

육군훈련소팀

오늘 논산 훈련소교회

저녁 찬양사역 위해 출발

육군훈련소사역팀이 오늘 논산에서 사역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에 로비에서 모여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 사역은 6주마다 한번씩 갖고 있는데,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저녁 찬양예배에 2번에 걸쳐 참여하는 7,000여명의 훈련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역은 인천 꿈이있는 교회 뮤지컬팀 '피스'와 함께 한다. 돌아오는 시간은 밤 11시 30분에서 12시로 예상하고 있다. 관심 있는 성도들은 동참할 수 있다. 팀장 장순웅집사 011-9121-1334에게 문의하면 된다.

"Challengers"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4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Challengers"를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게 주님의교회 교사자격을 수여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은 3월 14일(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최인영전도사 016-744-4663)



3/21(주일)	3/27(토)	3/28(주일)
challenge 3 pm3:30-5	challenge 5 pm5-6:30	challenge 7 pm3:30-5
교회학교 진단과 도약 모색 김현령 전도사(주님의교회)	AWANA 1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AWANA 3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challenge 4 pm5:30-7	challenge 6 pm7-8:30	challenge 8 pm5:30-7
교사 부흥회 1 홍민기 목사(강남교회)	AWANA 2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교사 부흥회 2 홍민기 목사(강남교회)

“불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흥미로울 불어 성경과 유럽문화 강의”

2004년 3월 14일 우리교회 3층 소년부실에서 불어 성경과 유럽 문화에 대한 첫 강의를 있었다. 강사는 현 건국대 불어불문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주경복 집사이다. 주경복 집사는 이강의가 불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 흥미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교인들이 널리 알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 하며 강의를 지루하게 불어를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자유롭고 흥미로운 주제와 그림 사진 비디오등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강의 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배부된 강의 계획서에는 이 프로그램은 불어를 잘 아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첫글로 나와있다.특히 이 강의는 미국이라는 나라만을 통해 알고 있어 편협해지기 쉬운 서양에 대한 이해를 유럽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 얽힌 이야기를 나눔에 따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불어와 유럽 문화를 주제로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재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기대하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35명 학부모 참석 교회와 가정의 역할 재확인

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3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중예배실에서 고등부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다. '마라톤이 있으면 교회에 오기 어렵다' 는 우리교회만의 고충이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5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녀들의 신앙과 학

중등부

정신여중 아이들과 중등부 교사들의 따뜻한 만남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우리교회는 정신학원 교정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회학교의 양적 질적 성숙을 위한 좋은 재원들을 매우 가까이에 가지고 있다는 말이된다. 중등부는 이

런 취지에서 주님의교회와 중등부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지난 주일에 가졌다. 정신여중 교목의 협조를 받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1학년 성경 과목 시간에 중등부와 교육 지원부 교사들이 한 두 명씩 함께 참석하여 중등부 예배실인 소예배실에서 중등부 주보와 교사들이 정성껏 만든 사탕과 초대장 그리고 초코파이를 나누어주면서 교사들이 자신의 신앙과 중등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반에 학생들이 36명정도인데

13개반이니까 거의 470여명이 된다. 물론 단순히 이 아이들이 모두 주님의교회를 출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교와 교회가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며 협력하고 있는 좋은 현대 교회의 모델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중등부는 더욱 학교와 교회가 자주 만나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더욱 많이 가질 계획이다.

업, 가정생활 등에 대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교회와 가정의 친밀한 연속성이야



말로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양육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고등부는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스카 펫 박사가 지은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들의 관심 높아 긴장되기도

지난 2월29일에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다. 학부모를 초청하는 자리인 만큼 만반의 준비때문에 1주일 전부터 몸도 마음도 바빴다. 초등부의 현재 인원이 141명,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수는 67명이었으나 부부를 제외한 순수 참석가정은 대략 50가정. 초등부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에 대부분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석 인원이 너무 적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족이 조금은 아쉬웠다. 간담회에 참여하신 학부모들은 매우 관심이 높았으며 어느 학부모가 공과공부 시간에 담임교사의 경험담 대신 성경말씀 그대로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씀에 교사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영화 브루스 올마יתי 상영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 Challengers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을 준비했다. 오늘 (21일) 오후 1시 20분 중예배실에서 [브루스 올마יתי]를 상영한다.

[브루스 올마יתי]는 조물주를 찾아갔다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불평분자의 놀라운 발견을 그린 코미디 영화로 즐거움과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줄 것이다.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강의 를 기다 리는 Challengers 참석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지만 모든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상처나 연약함까지 나누는 소그룹

청년부 리더 MT

청년부 소그룹 리더들은 매주일 아침 11시 5층 청년2실에서 윤은성 목사로부터 리더교육을 받는다. 지난주는 리더 단합을 위해 MT를 가졌다. 3월 13일 토요일도 회를 마치고 리더와 임원으로 구성된 24명이 청년부 담당 윤은성 목사와 함께 최상인 집사집에서 가졌다. 늦은 밤에 가진 MT는 리더들 개인의 삶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과 풍성한 이야기 거리로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자신의 하나님, 가족이야기부터 쉽게 꺼낼 수 없는 상처나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 열려있는 리더들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청년부 소그룹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며 소그룹을 통하여 청년부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수요일 구역장 성경공부

소그룹의 5가지 M으로 표현하는 사역철학

담임목사는 수요일 성경공부 이후 이어지는 구역장 성경공부에서 <월로워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구역장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소그룹의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강의했다. 5가지 핵심가치란, 임무(Mandate): 영적 변화, 방법(Method): 소그룹 모임, 모델(Mobilize): 전략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과정(Multiply): 한 구역당 참가 인원 12명이 돌봄의 한계임을 깨닫고 그 이상이 되면 번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단(Means): 이러한 임무를 이루는 구체적인 수단은 기도와 축하의 수단을 통해서 가능함을 강의했다. 3월 24일(다음주)부터는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이 기존 8시보다 30분 앞당겨진 7시 30분에 진행됨에 따라 구역장 성경공부는 8시 30분에 진행될 계획이다. 각 구역은 지난주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구역교재로 사용하여 2004년 전반기 구역 모임에 들어갔다.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우리는 희망을 찬다!”

지난 주일 정신여중고운동장에서 유소년축구 클럽의 합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11시 30분에는 중등부 클럽이, 1시 30분에는 초등부 클럽이 그 힘찬 시작을 알린 것이다. 축구해설위원이자 2002한일 월드컵기술위원장이자 이용수집사와 헌신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4개월간의 훈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기초체력훈련, 기술교육, 게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축구 실력을 쌓아 갈 것이다. 아울러 성도들의 주차협조를 거듭 부탁한다. 1시 15분 이후에 운동장에 주차해 있는 차를 이동주차 시켜야 한다.